

##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실사 마무리

### 전주시, 해외 실사단 조사결과 '매우 우수' 평가 인증 여부는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사 따라 결정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최종 현지실사를 순탄하게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주시청과 전주시보건소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최종 현지실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주시가 공인을 받으면 전북지역 최초의 국제안전도시가 된다.

이번 최종 현지실사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 의장인 데일 헨슨(Dale Hanson, 호주) 실사단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 배정인 인제대학교 배경이 교수가 참가, 전주시의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

사했다. 실사단은 첫날 시청 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손상감시체계 보고를 들었다. 이어, 학교어린이안전 분야에 대한 보고와 교통안전분야 보고 청취 후 첫 마중길 현장을 방문했다.

둘째 날에는 보건소에서 낙상 및 노인안전 분야 보고를 받고 자살예방분야 현장보고를 위해 이증호수를 방문했으며, 방범폭력예방과 재해재난에 방 분과 보고를 청취 후 마지막으로 심사평 후 현지실사를 마쳤다. 실사단장을 맡은 데일 헨슨 의장은 현지실사 후 총평을 통해 "전주시의 안전도시 사업이 국제안전도시 7가지 공인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지역사회 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커뮤니티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전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여부는 실사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제정, 안전도시협의회·실무분과위원회 등 안전도시 시민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자살 예방, 교통안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예방 △낙상예방 △교통안전 △방범폭력예방 △학교어린이안전 등 6개 분야별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 손상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으로 전주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5월 중 공인이 확정되면 하반기 공인선포식을 개최해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펼쳐진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부안오복마실축제 성료... 전국 대표축제 도약 가능성 입증

## '어화 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마실갔다'

### 62만2800여명 다녀가... 40여개 프로그램 구성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큰 호응

'어화 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마실갔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펼쳐진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민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도 복새통을 이루며 전국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가운데 부안 전역의 행사장에 62만2800여명이 찾아 수백여명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복 받는 날 퍼레이드는 목원웨딩홀과 행복예식장 등 5개 방향에서 시작돼 메인구간(아담사거리-물의 거리)에서 하나로 모이는 퍼포먼스로 축제장을 찾은 1만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퍼레이드는 '부래 민복(扶來漸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의 고장 부안을 표현한 각계각층의 퍼레이드로 군민들에게는 자긍심

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부안과 부안오복마실축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 개막을 알리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둘째 날인 6일의 경우 '따로 또 같이! 플래시몹', '크로스오버 팝페라 콘서트', '오복마실운동회', '주렁주렁 오복을 잡아라'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올 부안오복마실축제에는 유럽 5개국 주한대사 등 주한 50여 외국인이 부안을 찾았고 체코와 이스라엘, EU,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주한 유럽대사 일행 10여 명도 부안오복마실축제를 찾아 부안행비빔발을 시식하고 복 받는 날 퍼레이드 등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 글로벌 축제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오색워터 Fun Fun마당'과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오복인형극'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결혼식 때 한복 입고 강강술래'에서는 결혼식

때 입고 장롱에 묵혀 있던 한복을 다시 꺼내 입고 1만여 명이 강강술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한 마당을 연출했다. 이처럼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성공리에 치러지면서 직간접 경제효과만도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부안의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의 화합과 단결 등 무형의 효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기 부안오복마실축제 제2위원장은 "올 부안오복마실축제가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리에 개최됐다"며 "축제의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 최우수축제를 넘어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국수 기자

매일 INDEX	
3면	-민평당 조배숙 대표 취임 3개월
4면	-재난 대응 훈련 오늘부터 시행

### 푸른 5월... 도내 곳곳 어린이날 행사 '풍성'

제96회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전주동물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풍성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전북도 봄여행주간(4월 28일~5월 13일)과 맞물려 다양한 지역축제까지 함께 열려 도내 유명 관광지 및 행사장마다 인파로 북적였다.

중앙산단관광지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해 꼬마손님들을 맞이했으며, 가족단위 관람객은 저마다 가져온 음식들을 먹으며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진행 중인 전주에서는 어린이날부터 사흘간 제22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렸다.

성년을 넘기며 탄탄한 대외 입지 구축에 나선 축제



조직위는 올해 한지문화 대중화와 함께 어린이날을 포함한 축제 기간인 만큼 ▲소망꽃밭 조성 ▲한지연 만들기 ▲한지카네이션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밖에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제24회 익산어린이날잔치가 열리는 등 도내 14개 시군마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으며, 부안오복마실축제 등 지역 축제까지 겹쳐 도내 전역이 들쭉했다. /김진성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진안군**  
꽃빛 지도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원연장 꽃잔디 동산**  
진안읍 원연장 마을 꽃잔디동산(14만㎡)  
5월 초순경  
문의: 063)430-2392

**유채꽃길**  
상전면

**금지배남실 마을 유채꽃길**  
5월 중순경 (14만㎡)  
문의: 상전면사무소 063)430-8261

**원연장 꽃동산**  
마이산로 원연장

진안IC  
진안읍